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Urban Design and the Public Good in the American New Urbanism

문선욱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Moon Sun-Wook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 이 논문은 2008년도 청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 2-1. 도시디자인의 개념
- 2-2. 도시의 공공성
- 2-3. 디자인의 공공성

3. 뉴어바니즘 도시의 사례분석

- 3-1. 뉴어바니즘의 개념과 원리
- 3-2. 사례대상지 개요
- 3-3. 도시디자인의 유형학적 분석
- 3-4. 공공의 가치특성과 상관성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의 단계별 기법과 유형학적 특성 및 그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적 가치와의 상관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뉴어바니즘 도시는 10가지의 기본원리를 가지며, 공간의 규모와 디자인작업의 단계별로 규제가 아닌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갖는 권장형의 규정에 의해 구현된다. 기본원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용도의 복합과 보행권으로 사회의 융합을 도모하며, 자족과 귀속감에 의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건강과 안전, 친자연성의 공공적 가치를 갖는다. 뉴어바니즘 디자인은 유전적 알고리즘을 갖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한 역사·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표현하며, 그 요소는 다양한 제약 환경조건 속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도출하여 자기조직화하며 응집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 수법과 공공적 가치관의 상관성은 향후 국내 도시디자인에 참조될 시사점을 추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 공공성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deducting the relativity of the public good to the corporeal characteristics in step-by-step instructions on urban design in the American New urbanism.

New urbanism has ten basic principals. It has achieved by not imposing legal control but encouraging dwellers in their well-being that have their choice in the process of urban design. The keyword of the basic principals are mixed-use and walkability for rehumanizing. These design for union of society, and then have the public good that is self-sufficiency, activating of community by belonging, health and safety, ecological balance. Design of New urbanism has inherited algorithms for a long time and acclimate circumstances, express variety and complexity of history and culture. The elements of design derive optimums and show cohesive self-organization in the multiplicity of barred environment.

New urbanism has the signification and suggestion for the public good. And then this study find the value and application method in Korean urban design.

New urbanism, Urban design, Public goo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 이후 사회는 고도성장의 중심인 도시지역으로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어 집적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체증, 주택부족,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시킴에 따라 대도시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능 분산과 도시 공간구조 조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이어져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와 확대, 공공공간의 감소에 따른 사적·폐쇄적 공간 확산, 분절된 녹지공간의 형성 등 도시 내시가지의 삭막한 생활환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에서는 뉴어바니즘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일구었고,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 등 대도시의 교외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기존 커뮤니티의 해체, 정주기반 약화 등 난개발의 문제를 양산하며, 미국이 겪어왔던 도시문제들을 되풀이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2008년 들어서는 정부의 디자인코리아사업 추진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시디자인의 공공성이 중요시되며,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디자인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시스템적 접근의 인식 부족으로 분야별 자기주장이 앞섬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의미는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영역 간 조화와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책추진에 있어서 통합되고 체계화된 계획과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뉴어바니즘 도시의 디자인 과정과 유형학적 특성 분석과 함께 공공의 가치특성과의 상관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향후 정체성을 갖는 중소도시와 교외주거지역을 조성함에 있어, 공공성 확보를 통한 커뮤니티 고유 기능의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완결성 증대의 방법을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1.2. 연구와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뉴어바니즘의 도시디자인과 공공성에 대한 연구로 문헌연구와 현장답사에 의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로 뉴어바니즘 근린주구 중 신전통주의 기법의 근린주구인 씨사이드(Seaside, Walton

County, Florida, 1981)와 캔트랜즈(Kentlans, Gaithersburg, Maryland, 1988)로 한정하여, 2007년 9월 방문을 통한 인터뷰 자료, 설계도서와 해당시의 통계자료 수집, 현장답사에 의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먼저, 최근 국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시디자인의 개념과 도시공간의 창조적 표현 도구로써 디자인 역할을 고찰하고, 공공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뉴어바니즘 도시의 사례분석단계로, 그 이론적 배경과 의의, 개념과 특징을 수집된 설계도서와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해 수집된 인터뷰 및 통계자료와 설계 도서를 통해 뉴어바니즘 신전통주의 도시의 디자인과정과 유형학적 특성을 도시와 단지, 블록 및 가로, 건축으로 분류한 공간의 위계와 작업의 단계별로 분석한다. 이 때 총체적이며 시스템적으로 표현된 물리적 공간을 앞서 논의된 공공성의 프레임워크에 의하여 그 조영 과정과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뉴어바니즘의 공공적 철학의 가치 특성을 도출하고, 종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도시디자인과 공공성

2.1. 도시디자인의 개념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찾고 그에 맞는 기능과 심미적 물리 환경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전후 또는 재해 시 임시적인 환경을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 속에 들어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전문성을 제공하면서 현지에 맞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것이 도시디자인 곧 사회적 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일 것이다.

도시의 총체적이며 종합적 특성을 가지므로,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시 이미지를 완결할 가로 및 환경, 건축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념을 갖고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이후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은 융합문화시대이므로 도시디자인에 있어서도 학제간 연구를 배경으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분야 간 원활한 소통을 기본으로 행해야 한다.

2.2. 도시의 공공성

도시의 역사적으로 대중을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근대 이전의 공공구조물들, 신전, 왕궁, 감옥 등 신이나 왕 등 권력을 위한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다.¹⁾ 현대에도 시민을 위해 건물을 축조하고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망을 구축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의 헤게모니

1) 최석준(2007), 공공디자인과 창조성에 관한 상관관계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3, no.4, pp433~434

를 장악한 소수가 최대 수익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2) 이런 까닭에 제도상 시민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공공기관이 도시라는 공간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 시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한 주체에 의한 독단적 도시공간은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행정주체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디자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훌륭하게 조성해 놓은 도시의 공공 공간이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소모적이고, 쓸모없는 전시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도시는 일제하에서 건설된 도시에서 시작되어, 한국전쟁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전후복구와 주택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열악한 환경위생의 개선이 주요 목표로 공간의 공공성과 수준 높은 질을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경제부흥은 사회의 모든 가치가 오로지 효율적인 경제성장에만 집중되어 고도의 성장과 개발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과 공간의 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채 대량생산체계에 의해 획일화를 강요하는 도시공간이 형성되었다.3) 효율과 수익에 치우친 가치관은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관의 도시디자인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이러한 가치관은 급변하는 우리 역사의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전통사회와 근대 이후 사회가 단절되어 시민의식이 함께 발전되지 못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의 기저가 되는 수준 높은 시민으로부터의 풀뿌리 디자인으로 성장할 수 없었으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의 공공성은 유형학의 미적 측면과 사용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한 참여디자인과 지속가능한 유지 및 관리측면도 함께 고려될 때 그 진정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3. 디자인의 공공성

최근 공공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으며, 도시와 관련하여 '공공디자인' 분야가 급부상하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공간에 대해 시민들의 부동산적 가치를 제외한 무관심과 함께 일방적 기획에 의한 결과 위주의 또 하나의 사업으로 진정한 공공성과는 다른 측면을 가질 우려가 있다. 애초에 디자인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근본적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공공'이란 접두어를 붙여 강조함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디자인은 공공성이 결여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사회에

서는 굳이 '공공디자인'이라고 분류하지도 지칭하지도 않으며, 다만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이 최대한 시민을 위하고,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자를 이롭게 하는 근원적 철학을 가지고 충실히 행해진다. 서구의 선진공공디자인을 참조함에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이고 물리적 결과물들만을 벤치마킹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디자인은 그 속에 흐르는 디자인철학이 핵심이며, 벤치마킹할 대상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는 자칫 남보다 튀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간의 흐름 속에 퇴색될 걸만 번지르르한 시끄러운 디자인물만 양산할 수 있다. 우리의 몇몇 도시들이 일시적 이벤트성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며,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간판의 교체와 가로시설물의 설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사뭇 드라마 세트장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전면의 모습과 공존하는 배면의 엉성한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가로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조직화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지, 퇴색될 간판과 노후화될 시설물의 전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의 한 부분으로써 진정한 가로환경개선이란 가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시공간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 디자인되고 배치되며 정비 및 관리할지를, 주체와 객체의 구도 속에서 각각의 견해를 조율하며,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도시 속의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디자인이 도시의 살 만한 가치를 창출하므로, 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 속에 내재한 타자를 이롭게 하는 '공공'의 디자인 근본속성이 경쟁력인 것이다.

3. 뉴어바니즘 도시의 사례분석

도시디자인의 공공성 연구의 분석 대상지는 미국의 근대 개발위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어바니즘 도시 중에서도 특히 전통의 공공적 가치관과 그 디자인을 참조한 신전통주의 근린주구인 해변의 휴양도시 씨싸이드와 캔트렌즈 주거단지로 선정하였다. 2007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현장방문답사를 통해, 도시디자인과 운영에 관한 주민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설계도서와 해당시의 통계자료 수집과, 현장의 조사 및 확인에 의해 분석하였다.

3.1 뉴어바니즘의 개념과 원리

미국의 교외주거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심도시에 만연해 있던 과밀, 범죄,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2)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pp208~211

3) 최석준, op. cit., p434

있는 선호된 생활양식이었다. 그러나 단일용도의 토지이용,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슈퍼 블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공원 위의 타워(Tower in the park)기법은 사람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공간을 만들며, 사회분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가져왔다.4)

뉴어바니즘은 1940년대 이후 교외화에 따른 심각한 도시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한 민간 주도의 새로운 개념이다. 근대 도시계획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간적인 척도를 지닌 전통적 도시로부터 유추한 원칙을 적용하여 보행 중심의 긴밀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공공공간의 부활, 도심 활성화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 소도시의 개념을 회복한 보행자 중심의 활성화된 도시커뮤니티 계획 개념은 도보 가능한 거리에 교육·상업·업무·공공 공간 등 복합용도의 건물과 도시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가로를 통해 매일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을 자연스럽게 묶어주는 본질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인 복합적 토지이용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이 가능하게 한다. 보행위주의 생활패턴 회귀는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현대문명의 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공동체 생활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을 갖는다. 또한 지역이 갖는 역사적 양식과 건축적 형태를 중시하여 가로에서 보이는 건물과 경관은 지속적이며, 근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그 형태에 대한 제어를 강조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촉매이기도 하다.5)

1996년 회원들이 채택한 뉴어바니즘 헌장(Charter of the NewUrbanism)은 뉴어바니즘에서 주장하는 원리6)들을 표명하고 있다.7)

기본원리는 전통적 근린구조(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Walkability) 조성 원칙에 의해 대부분의 시설은 도보권 내에 있을 것,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 이외에도 상점, 직장,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는 복합용도 및 다양성(Mixed-Use & Diversity)을 가질 것,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층의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주택의 혼합(Mixed Housing)과 건축과 도시설계의 질(Quality Architecture & Urban Design)적 수준을 높일 것, 대부분의 시설과 활동 거점은 고밀도(Increased Density)로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역과 정류장에서 도보로 접근하여 에너지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Smart Transportation)일 것, 자연환경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하고 향상된 인간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가질 것 등이다.

[표 1] 뉴어바니즘의 기본원리
(출처 : <http://www.newurbanism.org>)

목표	세부 내용
1. Walkability	- 집과 직장은 도보로 10분 이내 - 보행자에게 친근한 가로환경디자인 - 자동차로부터 자유로운 보행로
2. Connetivity	- 분산된 교통과 침투성이 좋은 상호 연결된 격자형 가로 네트워크
3. Mixed-Use & Diversity	- 직주복합 - 근린주구와 블록, 빌딩 내에서의 복합용도 - 연령, 계층, 문화, 인종 등 다양성
4. Mixed Housing	- 유사 범주 내에서 주택의 유형, 규격, 규모 다양화
5. Quality Architecture & Urban Design	- 美, 편의성, 장소성 창출 강조
6. 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	- 중심과 경계의 명확성 - 중심에 공공공간 마련 - 공공영역의 질 중요성 - Transect planning
7. Increased Density	- 주거, 빌딩, 상점과 같은 서비스시설을 같이 입지시키는 것은 보행자 증대, 서비스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편의성 제공
8. Smart Transportation	- 도시, 타운, 근린주구를 모두 연결시키는 고도의 도로 네트워크 - 보행자에게 친근한 디자인
9. Sustainability	-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 최소화
10. Quality of Life	- 좋은 장소의 조성으로 높은 삶의 질 추구



[그림 1] 트란섹 존

(출처: Smart Code, DuanyPlater-Zyberk & Company)

뉴어바니즘 헌장에서는 위계별로 대도시권-도시-타운-근린주구-구역-주요이동로-블록-가로-건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도시디자인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Transect Planning8)에서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운 및 근린주구 이하 위계를 대상으로 한다.

3.2 사례 대상지 개요

(1) 씨싸이드(Seaside Walton County, Florida,1981)

8) The Lexicon of the New Urbanism(1994~1996), Duany Plater-Zyberk & Company

4) 박영춘 외(2000), 뉴어바니즘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6, no.5, p77

5) Katz, Peter(1994), The New Urbanism, McGraw Hill

6) 미국 뉴어바니즘을 탄생시킨 앙드레 듀아니(Andres Duany), 피터 칼썸(Peter Calthorpe), 엘리자베스 플래타-지버크(Elizabeth Plater-Zyberk), 엘리자베스 몰(Elizabeth Moule), 스테파노스 폴리조이데스(Stefanos Polyzoides), 다니엘 솔로몬(Daniel Solomon) 6명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1991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아와니 호텔에서 회합을 가졌던 것을 계기로 아와니 원칙이라고 칭함. 이들은 뉴어바니즘 원칙과 커뮤니티 형성방식의 전반적 변화를 주장하는 비영리조직 CNU(Congress for the New Urbanism)을 만들어 활동함, Andre Duany, Elizabeth PlaterZyberk and Jeff Speck(2000), Suburban Nation-The Rise of Sprawl and the Decline of the Amerian Dream, North Point Press

7) 뉴어바니즘 협회 저, 안건혁, 운영태 역(2003), 뉴어바니즘 헌장, 한울아카데미

플로리다 월튼카운티에 위치한 씨싸이드는 80에이커(약36만㎡)에 인구2,000명을 수용하는 350여개의 단독 주택군으로 이루어진 작은 휴양도시이다.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인간성을 회복될 수 있는 미국인의 교외지역 생활패턴의 이상적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2] 씨싸이드의 위성사진과 단지배치도

(2) 캔트랜즈(Kentlands Gaithersburg, Maryland, 1988)

캔트랜즈는 전통적 근린주구개발개념(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곳으로 워싱턴 D.C.에서 북쪽으로 37km 떨어진 352에이커(약 142만㎡)의 도시로, 1,600세대 규모에 인구 5,000명을 수용한다. 1988년 설계, 1989년 착공되어 1991년 입주가 시작되어 2002년 개발이 완료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주거와 공공시설 및 오픈스페이스로 다양한 계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 캔트랜즈의 전경과 단지배치도

3.3 도시디자인의 유형학적 분석

(1) 도시 및 단지 디자인 단계

주요 도로와 중심지는 도시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두 사례지의 특징은 간선도로변에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체계, 녹지체계 등의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가로체계 또는 루프형을 조합한 효율적인 격자형 가로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토지이용은 도시의 성격규명의 단서가 되는데, 커뮤니티 가로는 복합용도의 혼합으로 24시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표 2] 도시 및 단지디자인 단계의 분석
(출처: 이재명 외 2인, 뉴어비즘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Seaside	Kentlands
공간구조		
토지이용		
가로체계		

씨싸이드는 단지의 중심에 편의시설 및 학교를 배

치하고, 중심의 보울(bowl)형 잔디 광장은 단지의 정체성(identity) 확보에 기여한다. 도로체계는 간선도로변에 튜펠로 씨클(Tupelo Circle)이라는 중심지가 형성되어, 시각통로와 방사형 가로체계의 중심이 된다. 격자형의 도로패턴이 뺏어나가는 축의 끝에는 바다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는 시각적 초점의 전망대로 연결되어, 해변가와 도시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즉 해변은 인접한 주택의 사적공간이 아닌, 명확한 공공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물리적·시각적 측면 모두에서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조에 기여하고 있다.



우체국 후면무대를 중심으로 한 광장은 상점, 여가시설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이 되는 보울형의 공공공간

[그림 4] 씨싸이드의 중심 잔디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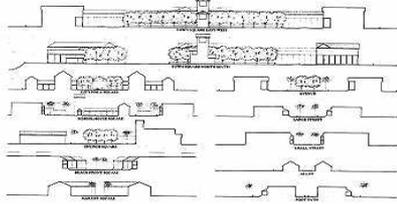
캔트랜즈는 교외성장의 연속선상에 입지하며, 주민들의 공개디자인 샤렛(charrette)을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고전적임 미국 전통도시와 같이 명확한 경계를 갖는 근린으로 구성되었다. 즉 옛 캔트랜즈 농장의 중심이었던 올드 팜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상업시설과 연계된 중심이며, 학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선의 강한 도로축이 형성되고, 세부가로는 격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루프형 도로를 겹쳐여 통과교통을 배제하였다. 주거, 사무, 공공, 문화, 소매시설 등 각 기능 존인 6개 마을들의 연결은 소매기능을 가로 네트워크와 도보로 연결시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다. 호수 등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중심부 주위로 고밀도의 집합주거가 형성되고, 주변에는 저밀의 단독주거가 입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폭넓은 연령과 소득계층의 주민들을 위해 주택의 형태와 크기를 다양화한 것이다.

(2) 블록 및 가로디자인 단계

블록은 건물의 구성과 도시의 공공영역을 모두 드러내는 공간이다. 블록의 외측면은 공공공간으로 확정하고, 크기와 형상, 가로벽, 주차, 조경 등의 조건을 규정하며, 가로는 보행자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게 된다.

두 사례지 모두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보행체계와 생활가로계획이 중심이 된다. 건축선 후퇴와 경계에 접하는 건축물의 비율은 각 블록의 오픈스페이스와 건물형태 사이에 기본적인 리듬을 부여하며, 형성된 가로변을 따라 다른 주택들과 긴밀하게 배치되어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가로의 건축적 특성은 가로 형태를 기반으로 가로의 넓이와 적절한 비례를 갖도록 한다. 자연환경을 배려한 가로체계는 가로의 폭을 좁혀, 자연스럽게 회전반경도 줄여 주거지 내에서 차

량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감시킨다.



씨사이드의 도시디자인은 타운 중앙광장부터 블록중앙 보행전용 도로까지 이어지는 공공공간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5] 씨사이드 건축디자인 지침
(출처: Peter Katz, The New Urbanism)

씨사이드의 가로교차점과 해변 입구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정자(gazebo)와 폴리가 배치되어 가로경관의 종점 및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물리적으로는 가구를 가능한 소규모로 하여 밀도를 높이고, 전면과 후면의 정원과 사적 공간의 크기가 매우 작은 반면 도시 전체의 공공공간이 넓게 디자인되어 있다. 필지 사이는 Footpath라는 좁은 골목이 배치되어, 커뮤니티 내 모든 곳을 연결시키므로 보행자의 경로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침투성⁹⁾이 매우 양호하다.



[그림 6] Footpath와 해변을 연결하는 목재보도와 정자

캔트랜즈는 필지 후면에 차고, 쓰레기장, 수도계량기와 배전반 등이 있는 골목길을 두어 주택 서비스 수요를 위한 장소로 중요한 도시기능을 하며, 주택전면은 차고와 전신주 등이 제거됨으로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



[그림 7] 캔트랜즈 단독주택가의 전면과 차고가 있는 후면

절성토를 피한 완만한 자연구릉지에 최대한 식생을 보전하면서 건물이 배치된 낭만적 풍경은 보행 시 심리적 안정감을 높임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색채디자인을 살펴보면, 씨사이드는 플로리다 지방의 멕시코만 앞에 펼쳐지는 하늘과 바다의 Blue와 흰색 산호가루 모래사장의 White로부터 얻어진 파스텔 톤의 자연의 풍토색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색채는 Pale톤을 주조로 한 디자인코드에 의한다.

캔트랜즈는 미국 동북부 농장의 경관으로부터 얻어진 Green과 Red색상의 저명도, 고채도 Deep톤의 지방색이 자연의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공적인 도색보다는 자연재료에 의한 색채표현으로 주변

9) 침투성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개념으로 도시환경의 안전에 있어서 유효한 개념이다.

환경과 하나 되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색채디자인을 바탕으로 가로시설물과 옥외 사인물 역시 그 형태는 기본적인 기능에 의하되, 지역의 풍토색을 기초로 디자인되어 개별적으로 튀지 않으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강한 이미지로 완성된다. 일련의 환경색채디자인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표 3] 가로환경디자인

구분	사례 이미지와 내용
Seaside	<p>환경 색채</p> <p>풍토는 태양의 빛, 흙의 색을 의미하는데, Seaside는 북부 Florida지방의 하늘, 바다, 토양(백사)로부터 도출된 파스텔 톤의 풍토색을 가지며, 이를 기본 색조로 색채디자인함</p>
	<p>옥외 간판</p> <p>근린주구의 풍토색조인 파스텔 톤의 환경색채디자인과 조화되는 간판디자인</p>
	<p>가로 시설물</p> <p>현금인출기, 자전거보관소, 휴지통, 도로표지판, 바리케이드 등 흰색과 파스텔 톤의 풍토색에 어울리는 가로시설물</p>
Kentlands	<p>환경 색채</p> <p>미국 동북부 농장의 경관으로부터 얻어진 저명도, 고채도 Deep톤의 Kentlands경관의 환경색채</p>
	<p>옥외 간판</p> <p>단지 내 전통 붉은 벽돌과 조화로운 캔버스 차양과 간판</p>
	<p>가로 시설물</p> <p>단지 내 전통 붉은 벽돌과의 조화로운 디자인의 자전거보관대와 보도포장, 안내표지판, 휴지통</p>

(3) 건축디자인 단계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은 분리될 수 없으며, 개인적 이익과 행위는 점진적이지만, 필연적인 공공영역을 만들어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엄격하게 디자인 법률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법제화 과정은 공공영역 권익 보호의 미국 도시전통 속에서 전적으로 개별 건물 디자인에 중요한 자유를 허용하며 운영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 속에 있다. 물리적 집행은 강력하며, 그 내용은 특정계획의 소유자, 건축가, 이용자 사이의 계약과도 같다.

건축양식(style)은 타운과 도시의 역사적 연속성의 원천이 되므로 디자인은 역사적·지역적 유형의 실현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문화적 연계성을 나타내며, 풍토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있다. 재료는 쉽게 사용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며, 지역에서 검증된 건설방법에 의한다.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건설과정에서 저에너지 소비와 무공해 작업을 추구한다. 건축물은 단지 기능적인 것 뿐 아니라, 건물유형(type)을 감안하여 디자인하며,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의 용도 변경이나 지속가능한 건축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종류는 도시조직으로서 가로와 블록에 관련된 모든 규칙을 따르면서, 같은 종류의 다른 건물들로 형태의 일관성 가지는 배경적 건물(fabric buildings)과 형식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건물로, 도시에서 사회적 의미를 집중시키는 초점이 되는 기념비적 건물(monumental buildings)로 분류하여 디자인하며 관리된다. 정면성(frontality)은 건축표현에 있어 3가지 스케일을 허용하는데, 가로의 공공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 블록 내부에 반공공적 성격의 오픈 스페이스를 반영하는 것, 골목길과 뒷마당의 서비스 특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사례지별로 살펴보면, 씨싸이드는 도시디자인의 어반코드(urban code)로써 미국 남부 플로리다 조지아주의 초기 정착민들이 사용했던 일정한 구매를 갖는 경사지붕의 목조로 된 자생적이고 전통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참조하여 지정하고 있다. 개별건물보다는 집합체로서의 소규모 도시로, 소박한 지방색을 표현하며, 다양하게 제공되는 주택유형 범주 안에서 자신의 집의 형태를 선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망사문이 달린 현관과 크고 깊은 처마와 바다로 개방된 넓은 포치, 모든 방의 바람이 잘 통하는 커다란 창, 건물의 부식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되는 높은 마루, 도로에서 5m떨어진 곳의 흰색 피켓펜스와 물결형의 금속판 지붕, 목재 합판이나 널판으로 된 외벽, 세로로 긴 창문과 셔터문 등 디자인 요소는 모두 어반 코드(urban code)에 입각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법령은 특별한 건물유형을 묘사하는 일련의 단순한 다이어그램과 주석으로 전달되어 비전문가들도 디자인을 개념화하거나 실행하기 쉽게 되어 있다. 또한 규제방식이 아닌 권장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형태의 건물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캔트랜즈는 미국 북동부의 정착기 건축유형인 빅토리아 및 조지안 시대풍의 전통양식을 코드화 한 'The Kentlans Code'를 따른다. 건축자재, 건축구조, 건축기법에 관한 지침을 외벽, 건물요소, 지붕, 창문,

문, 정원 등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시각적인 통일감을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가운데 같은 디테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성을 배양하고 있다.

[표 4] 캔트랜즈의 건축기준의 일부

구분	지침내용
창문	• 창문은 목재로 만들어야 하고, 흰색 수지로 코팅해도 됨 • 일광옥실은 앞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얇은 색조 창이어도 됨
유리	• 유리는 투명하고 색으로부터 자연스러우며, 가까운 도로로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투명하지 않아도 됨 • 스테인드글라스와 예술유리는 타운건축가의 승인 필요함 • 유리 창문은 앞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 허용
셔터	• 셔터는 목재나 수지로 만들어져야 함
천막	• 천막은 캔버스로 하며, 재질은 타운건축가에게 승인받음
문	• 문은 목재, 엠보싱 스틸이나 베니어판이 붙여진 섬유유리가 될 수 있으며, 앞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슬라이딩 파티오 가능 • 방풍문과 스크린은 창과 같은 재질이어야 함
차고문	• 차고문은 목재, 엠보싱 된 하드보드나 스틸, 베니어판이 붙여진 섬유유리이어야 함



3.4 공공의 가치특성과 상관성

뉴어바니즘의 기본원리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공공적 가치관 중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여 도시의 유형학적 디자인 기법과 공공적 가치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1) 커뮤니티와 자족성

커뮤니티의 사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간 구조적으로 중심부는 필수적이다. 뉴어바니즘 커뮤니티의 활동 중심은 근린의 공공건축과 상업시설이 광장과 보행물로 복합된 공공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에서 오락, 휴식, 업무, 전시 등이 이루어져 귀속감을 높이며, 소비의 자족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근무지가 타 지역으로, 고용은 시외에서 이루어져 생산의 자족성은 낮았다.



[그림 8] 캔트랜즈의 주민센터 내 아트공방과 행사홍보물

주민단체로는 씨싸이드 인스티튜트는 NPO를 설립하여 도시에서의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신문발행,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캔트랜즈는 도시디자인의 중요 변경 시 사정을 통해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씨티즌 어셈블리(Kentlands Citizens Assembly, KCA)는 마을의 주민자치기구는 준공공조직의 공식적 의결기구이다. 자치행위를 시정부로부터 최대한 인정받아, 근린공원, 놀이터, 공공용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박물관과 클럽하우스를 보유하고, 회합과 행사를 주최한다. 이 조직은 건축 코드

등 자체적으로 만든 규약을 조례로써 인정받아 시행한다. 이런 규약은 규제보다는 권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 해당시인 게티스버그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하고 있다.

(2) 건강·안전성

도시의 안전을 주민이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침투성이 좋은 도로체계, 작은 필지와 좁은 가로폭, 차고가 뒤편으로 분리되고 가로면에 접하는 주택, 길모퉁이에 집합적으로 설치된 주거지의 우편함은 이웃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가로폭과 회전반경의 축소도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격자형 가로체계는 통행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소통은 원활하게 하지만, 모든 지역의 안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행도로에 한할 경우 침투성이 좋아 오히려 안전성을 높인다.

두 근린주구 모두 마을 내에서는 도보에 의해 생활이 가능한 보행중심디자인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¹⁰⁾의 적용으로,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마을은 주민의 생활편의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3) 사회적 혼합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혼합에 의한 형평성 추구는 뉴어바니즘의 원칙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주택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계층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소득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씨싸이드는 고립된 휴양타운으로 일부 비평가들이 격하하고 있고, 캔트랜즈는 백인들의 고급주택가로 실제로는 부동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고급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간·인종간 혼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민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주택만 바꾸면 마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령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은 꽤 성공적이었다. 즉 소득수준이 비슷한 계층의 주거지에서 사회적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해지며, 이로써 커뮤니티는 더욱 활발해진다.

(4) 역사·문화의 보전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은 1950년대 중반 이전의

10) 유니버설디자인은 가능한 최대한의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한다. 다양성의 사회를 존중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른 역동적 변화들을 포용력 있게 수용하는 디자인 창조물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배려이다.

미국 전통도시의 경관을 차용하여 어반코드 즉 도시 디자인지침에 따라 지구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디자인 코드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의 자연·인문·사회적 환경 분석에 의해 구체적이며, 실행하기 쉬운 통합적 시스템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 코드의 적절한 리듬과 변용에 의하여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고유한 경관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9] 캔트랜즈의 마구간을 보전한 아트바와 공연장

캔트랜즈는 과거 Kent농장이었다는 점에서 마을 및 가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장 유물인 3개의 건물을 Foundation Museum과 미술 및 문화회관인 Kentlans Mansion, 전에 마구간으로 쓰이던 곳을 미술 스튜디오와 99석의 공연장을 보유한 Art Barn으로 보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소방기구고, 구 농장 관리사택 등이 보전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에 관해서도 모두 3종의 책자가 발간되어 지역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게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캔트랜즈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작은 마을의 향수를 호소하지만 진정한 새로운 특성의 창조에는 부족하므로, 전통의 공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현재와 미래적 도시디자인 개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친자연성

씨싸이드는 생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자연녹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설계로 모든 식물은 플로리다 해변 기후에 잘 적응하는 자생종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정과 관개 등 별도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래와 자연자갈이 기본이 되며, 주택의 후정에는 잔디식재가 금지되어 있다.



[그림 10] 씨싸이드 간선도로변과 주거지의 생태적 식재

캔트랜즈는 환경측면에 있어 개발 이전부터 Kent 씨에 의해 조성된 인공호수 및 습지와 경계부의 그린 벨트가 잘 보전되고 있다. 개별 정원의 식재와 재료 등은 규정이나 타운건축가가 승인한 재료에 한한다.



[그림 11] 캔트랜즈의 보전되는 호수와 자연생태녹지

녹색교통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 내 보행과 자

전거에 의한 통행로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초기의 디자인 의도와는 달리 많은 거주자들이 도시 밖에 직장을 갖고 있어, 의외로 차량이 많았으며, 가로 내에는 일렬주차가 일반화되어 있는 등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철 등 역과 이어주는 셔틀버스가 없고 철도에 의한 직접연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교외 지역으로의 이동은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진정한 보행중심도시라 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망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공공적 가치	기본 원리		Seaside	Kentlands
			● 도보5분	● 도보10분
커뮤니티 지향성	Walkability	●	●	●
	Connectivity	●	●	●
건강 안전성	Mixed-Use & Diversity	● 특활용도 ● 모든인명 세대수용 ● 인명, 계층 수용못함	●	● 직주복합 근린복합 ● 모든인명 세대수용 ● 인명, 계층 수용못함
	Mixed Housing	▲	●	●
시외적 존엄	Quality Architecture Urban Design	●	●	●
	Traditional Neighborhood Structure	●	●	●
역사문화 공간	Increased Density	▲	●	●
	Smart Transportation	×	●	×
친자연성	Sustainability	●	▲	●
	Quality of Life	●	●	●

[그림 12] 공공적 가치와 뉴어바니즘 원리와의 상관성과 평가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미국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공공적 가치는 귀속감에 의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복합용도에 의한 자족성, 건강과 안전성, 연령대의 사회적 혼합, 역사·문화의 보전, 친자연성이다. 이러한 공공적 가치관과 도시디자인의 단계별 유형학적 특징과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단지 단계에서는 공공공간을 통한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 커뮤니티활성화를 촉진한다. 용도의 복합은 도시의 자족성을 높인다. 블록 및 가로 단계에서는 차량속도 저감과 보행자 위주의 디자인으로 소통의 공간을 형성하여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이는 곧 도시의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으로 연결된다. 풍토환경 분석을 통한 환경색채디자인과 재료사용, 가로시설물 디자인은 총체적 조화로 자연과의 친환경 경관을 창출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는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해 디자인코드를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그 법제화와 집행과정은 샤프트 등 자발적 조직에 의해 주민들이 참여하며, 시는 이를 조례로 인정하는 등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 뉴어바니즘은 디자인 원리를 전통에 주목한 결과, 현시대 이후 나타난 분화된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과, 신기술에 의한 도시 간 대중교통망에

있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공의 의미가 타자를 이롭게 하는 가치보다는 공권력의 주체로써 인식되어, 시민들이 법제화와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부족해 보인다.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을 우리 도시에 직접 적용함은 인구밀도, 환경 등이 상이하여 실현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그 과정과 가치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법령 시행이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배경적 건물과 기념비적 건물로 분류하여 디자인하며 관리되는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갖는 권장형의 뉴어바니즘 디자인코드와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뉴어바니즘 도시디자인 수법과 공공적 가치관이 도시와 관련된 디자인 분야의 관심으로 이어져 각 분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바라며, 향후 실현 가능한 다차원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디자인 수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2004), 미국의 뉴어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논
- 뉴어바니즘 협회 저, 안건혁, 은영태 역(2003), 뉴어바니즘 현장, 한올아카데미
- 박영춘, 류중석(2000), 뉴어바니즘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6, no.5
-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 하재명 외 2인(2004), 뉴어바니즘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5, no.1
- 최석준(2007), 공공디자인과 창조성에 관한 상관관계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3, no.4
- Andre Duany, Elizabeth PlaterZyberk and Jeff Speck(2000), Suburban Nation-The Rise of Sprawl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 North Point Press
- DuanyPlater-Zyberk & Company(2005), Smart Code
- Ellis, cliff. (2002), The New Urbanism : Critiques and Rebuttals, Journal of Urban Design, vol.7, No.3
- Emily Talen(2005), New Urbanism & American Planning: The conflict of cultures, Routledge
- Gaithersburg, City of, 2006a · 2006b, 2003 Census Update Survey · Dwelling Units and Estimated Population
- Katz, Peter(1994), The New Urbanism, McGraw Hill
- Leccese, Michael(2000), Charter of the new urbanism, McGraw Hill
- The Lexicon of the New Urbanism(1994-1996), Duany Plater-Zyberk & Company
- <http://www.newurbanism.org>